

제60대 중앙운영위원회 안건지

차수	2차 정기
일시	17. 12. 11 18 : 30
장소	총학생회실

참석확인 (10/13)

간호	경경	공대	사범	사과	약학	예술	인문	의학	자연	동연	부총	총
○	○	○			○	○	○	○	○		○	○

□ 보고 안건

1. 총학생회 국장 및(홍보국장, 사무국장) 인준 (총학생회 회칙 제41조에 의거)

(1) 총학생회 집행부 국장 인준 진행

-홍보국장(장혜지 미디어커뮤니케이션16) 9단위 참여 중 9단위 찬성으로 **가결**

-사무국장(?)9단위 참여 중 8단위 찬성으로 **가결**

2.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

: 날짜는 아직 미정으로, 종강 후 1주일 내외 열릴 것으로 예상. 2018년 예산구조, 연도별 고정비의 추이, 주요 대학 등록금 수준 비교 등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으며 이후 주요 사안에 대해 토의할 것. 올해 외국인 등록금 인상에 따른 16-17년 요구안(한국어수업 프로그램 증설, 한국어 교육 수강 의무화, 한국어 교육 질 향상, 외국인 유학생 복지혜택 증진 등)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문의 할 것.

등심위 논의 확정내용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공유한 이후 카드뉴스로 공지할 것.

3. 단위요구안

: 12월 18일까지 단과대학별 단위요구안 총학생회 이메일(on.cau60th@gmail.com)로 송부 요청.(이전 단위요구안 형식 참조)

□ 논의 안건

1. 정원이동

1) 59대 중앙운영위원회 요구안에 있는 '현 사안에 대한 본부의 입장표명' 이행 필요. 총 2차로 나누어 진행. 1차는 최대한 빠르게, 2차는 결과보고와 정원감축 단위 지원방안을 포함한 내용으로 정원이동 관련 학칙 개정 완료 시점 전후 공표할 것 권고.

- 1차 입장문은 다음의 요소를 포함한다.

① 정원이동의 배경 설명, 학교의 상황, **108명의 정원 이동분이 결정된 과정과 도덕성, 실효성, 실현가능성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할 것. (경과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하되 사전 정보가 없는 학내 구성원(교직원, 학생 등 모두 포함)이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할 것. **상세 근거자료**는 온라인 공유로 같음 가능하나 2)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이행할 것.)

② 정원 감축에 대해 학내 구성원에게 사과, 비전을 제시하는 내용.

+ 학교가 가진 데이터(지금까지 학생과 학과/부의 의견 수렴 결과, 단위별 정원 감축 계산 기준 등)를 온라인으로 공유하여 학내 구성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12월 19일 중앙운영위원회 이름으로 본부에 공식 요구.

관련 답변이 오지 않거나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명의의 성명서 작성.

2) 2차 중앙운영위원회 긴급회의에서 의결하여 12월 11일에 기획처로 송부한 바(수정안에 의한 단과대별 축소 인원에 대해 단과대학 내 학과/부 단위에서의 재협의 검토 가능성 고려 요청)에 대한 수용 여부, 감축단위에 대한 '타 배정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ex적립금 등) 행정/재정적 지원 여부'에 대해 확답이 없을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이름으로 성명서 작성, 공포.

2. 전공개방모집제도 단과대별 현황 보고

-공과대학: 광역화를 개선하여 전공개방 모집제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음. 광역화에서는 다른 학과로 이동을 원하는 학생만큼 해당 학과에 가배정되었더라도 강제 이탈되는 학생이 있었기에, 전공개방에서는 가배정 인원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선된 것. 소프트웨어 학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현 가배정 보장과 개방 비율을 유지한다면 학과 별 유입 인원의 차이는 있을 것이나 큰 이상 진행 될 것으로 예상. 현재 16학번은 광역화로 진행되고 있음.

-경영경제대학: 2017년 협의 내용과 동일.

-자연과학대학: 16년도 광역화를 진행했으나 여러 부작용으로 인해 17년도 진행하지 않고 학과 단위로 입학. 18년도 전공개방 일부 적용하나 물리/화학/수학 45명 중 5명만 해당. 생명공학과는 60명 중 10명 전공개방으로 배정하여 진행할 것. 그러나 이번 정원이동으로 인해 18년 전공개방 도입 전제 조건이었던 '더 이상의 정원조정X'가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차후 진행 확답 불가.

-인문대학: 2017년 협의 내용과 동일. 총원의 10%내외로 진행하되 세부 조건 안을 도출한 상태.

3. 단과대별 새터 진행 상황

-의과대학: 기존 2월 말 또는 3월 초. 비공식적으로 사이트를 만들기도 하나 정확한 안내 위해 2월 중순까지 기다려야 함. 행정실 문의 필요.

-공과대학: 행정실과 논의 필요. 자체적으로 새터 기획사와 미팅 지속 중. 이번 주 주말(12월 셋째주 주말)에 선택하여 답사 진행 예정. 일정 가안은 3월 2일~3월 4일.

-자연대학: 기존과 비슷하게 2월 말 새터 진행 예상. 입학식때 출발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이번 입학식 날짜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입학식 전 새터도 고려중. 내부에서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기획사와 미팅 중이며 이번 주 금요일 임원진 답사 계획 중.

-예술대학: 3월 4일에 예술대학 연극공연이 종료. 따라서 가안 일정은 3월 9일~11일. 현재 새터 기획사 알아보는 중.

-간호대학: 3월 2일~4일로 일정은 거의 확정. 개인 연락에 대해 행정실과 논의 필요. 다음 주 중(12월 넷째 주) 미팅과 답사 예정.

-약학대학: 기존 2월 27일~3월 1일로 진행했었으나, 이번 설날로 인해 여러 일정이 연기되어 아직 일정 불확실.

-인문대학: 3월 2일~4일 충북 제천 예정. 12월 8일 답사 진행, 인문대학 내 논의 완료.

□ 기타 안건

1. cctv 설치 관련

-여러 단위가 도난사고, 안전사고 관련하여 cctv 추가 설치를 필요로 하고 있음.(의과대학, 약학대학, 인문대학 등)

:현황과 필요 장소 조사 필요. 추가설치에 대해 시설처와 총무처에 문의 예정. cctv 추가 설치에 대해 단과대학별 단위요구안 작성하여 송부 요청.

2. 정원이동 관련 중앙운영위원회 대응 정보 공유 필요성

-중운위의 논의와 의결 결과 등, 대응에 대한 내용을 학우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좋을 것. 단과대학 별 진행에 대해서도 각 단과대학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개, 홍보하여 이해를 돕는 것이 필요.
: 총학생회는 관련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홍보할 것. 단과대학별로 주셨던 질문 역시 첨부하여 학우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것. 중앙운영위원회에 내용 피드백 진행 예정.